

대권 레이스 시동... 민생·경제 정책 행보로 중도공약

이재명 경기지사직 사퇴

국정감사 통해 각종 의혹 돌파
캠프 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원팀 선대위 구성 최우선 숙제
오늘 청와대서 문 대통령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직 사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들어간다. 지사직 사퇴는 당내 경선 과정에 불거졌던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양극을 씻어낸 뒤 대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리 지사직을 사퇴해 "야당 공격을 피하지"는 당내 일부 의견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정면돌파한 뒤 경기지사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본선 행보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26일 오전 11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담 형식으로 회동을 가진 뒤 이날 오후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 만찬까지 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본선 준비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는 이날 밤 12시를 기점으로 사퇴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26일 곧바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여론의 대선 후보로서의 일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도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 행보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정기국회가 새로운 주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내에 '이재명표 정책'을 최대한 입법화, 전국적으로 확대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실행력을 부각, 현재 최대 고민거리인 중도 확장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 외에도 지역화폐 예산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의 보완, 플랫폼 사업자·업주 상생 정책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아킬레스건인 대장동 정국 역시 '화전대유 방지법' 등 정책 행보로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자 여러 차례 토건비리 척결과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 도입 등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진성준 의원은 우원식·박홍근·박찬대 의원 등이 후보 측 의원들과 함께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검찰 수사 등 정국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정책 행보가 대장동의 족쇄를 풀 열쇠가 될지는 미지수다.

내부 준비도 여전히 숙제다.

이 후보는 전날 이낙연 전 대표와 2주 만에 회담함으로써 원팀 선대위 구성의 첫발을 뗐다.

이 후보 측은 앞으로도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을 선대위 요직으로 대거 참여시켜 '용광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 측 의원들도 선대위 참여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양측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까지는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

이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을 맡았던 김중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후보의 공약인 기본소득이 전 대표의 공약인 신복지 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의회 입구에서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을 선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책의 조화와 관련해 "공약은 원래 당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취지를 살려낼 수 있는 정책으로 복지와 병행하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양자대결, 이재명 37.5% vs 윤석열 33.6%

전두환 옹호·개 사과...尹 하락

KSOI 조사...李, 홍준표에도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가장 양자대결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에 모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 후보에게 밀리며 순위가 역전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와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맞붙을 경우 이 후보가 37.5%로 윤 전 총장(33.6%)에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9%포인트다. 지난 주 같은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37.1%,

이 후보가 35.4%로 윤 전 총장이 앞섰으나, 이번 주 들어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전주와 비교해 이 후보는 2.1%포인트 오르고, 윤 전 총장은 3.5%포인트 내렸다.

이강윤 KSOI 소장은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SNS 사진'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와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의 가장 양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가 36.7%로 홍 의원(34.8%)을 오차범위 내인 1.9%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전주에는 홍 의원이 35.9%로 이 후보(34.6%)를 앞섰지만, 이 후보 지지율이 2.1%포인트 높여지고 홍 의원은 1.1%포인트 낮아지며 역전됐다.

가장 다자대결에서도 이 후보가 선두를 차지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올 경우, 이 후보 33.6%, 윤 전 총장 30.0%, 정의당 심상정 의원 3.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2.8%,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1% 순이었다.

다자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지난주 대비 1.6%포인트 올랐고, 윤 전 총장은 2.9%포인트 내렸다.

국민의힘 후보를 홍 의원으로 가졌을 땐, 이 후보 33.2%, 홍 의원 26.3%, 심 의원 4.6%, 안 대표 3.6%, 김 전 부총리 2.5% 순으로 집계됐다.

전주 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는 1.7%포인트 상승, 홍 의원은 1.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시정연설 "방역·민생·경제에 집중"...대장동 언급 없었다

정치 이슈에는 최대한 거리

환호·침묵 여야 엇갈린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위기극복 정부'로 규정하고 6개월 가량 남은 임기를 일일회복과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 정부가 위기를 넘겨오며 이뤄낸 성취에 연설문 상당 부분을 할애한 반면 권력기관 개혁이나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 등 정치권에 직결되는 이슈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삼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로 5년 연속 시정연설에 나섰지만 처음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휘발성이 강한 이슈를 건드리려 대통령이 정치중립 논란에 휩싸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초고속 성장을

해 온 이면에는 그늘도 많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라고만 언급했다. 일정 부분 반성의 뜻을 담은 언급이기는 하지만, 과거 발언과 비교하면 그 수위는 상당히 약한 셈이다. 부동산 비리에 대해 언급할 경우 최근 대선 정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연결되며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알 수 없다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대한 정치 이슈에 거리를 둔 채 방역·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번 연설의 큰 틀이었던 셈이다. 또 정부와 국민이 거둔 성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등의 평가를 내렸다.

해운업에 대해서도 "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고,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이 사업이 세계와 함께 가는 길이 됐다"고 자평했다. 최근 '오

징어 게임' 열풍 속에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격려했고, 누리호 발사를 두고도 "성공했다"고 규정했다. 임기말 국정동력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더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문 대통령이 분회장에 임명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 따뜻한 박수로 맞은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하지 않고 '대장동 특검' 손뼉발을 세우고 장내 '침묵시위'를 벌였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17번의 박수로 호응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차례의 박수도 없이 연단을 응시하는데 그쳤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댔다"고 혹평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생교육상담학 전공)	2	2	
사 범	유아교육과	31	3	
예 능	음악학부	7	3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사로 36